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Urban Housewives' Life Style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임 정빈

박사과정 : 임 혜경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Han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Jung-bin Im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Hanyang University
Doctoral Course : Hye Kyung Lim

목 차

I. 서 론	1)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요인 분석
1. 문제의 제기	2)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클러스 터 분석
2. 연구의 목적	3) 라이프스타일
II. 이론적 배경	2.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
1.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라이 프스타일
2. 라이프스타일의 요소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라이 프스타일
3. 관련연구 고찰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1. 조사도구의 작성	
2. 조사대상	
3. 분석방법	
IV. 결과 및 해석	
1.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life styles of urban housewives, to see their correlation with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and finally to provide some useful for their ideal home management.

This study has been based on a questionnaire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housewives, and their life styles. The selected samples were 650 and 514 of them were analyzed.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OVA, Duncan test and χ^2 -test.

As a result of factor and cluster analyses of 64 items the life styles of urban housewives were classified into 5 types ; 'conservative stagnant type', 'sound and thrifty type', 'passive

'stagnant type', 'realistic and stable type', 'modern and evolutional type'. The life styles of the responde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variables of age, family life cycle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number of children, family type, education, occupation, income, the type of housing, and religion.

I. 서 론

1. 문제의 제거

현재 우리사회는 서구문물의 도입과 더불어 발생한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등의 요인에 의해 다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생활전반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환경적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에 발생한 변화는 헤아릴수 없이 많으며 그 범위도 방대하다. 즉 사회가 변동함에 따라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생활에 대한 태도 및 인생관, 가치관 등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인한 여성의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가정에 있어서 가정관리행동은 가정의 관리자 즉, 주부가 가족의 가치, 목표, 표준에 근거해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조함으로써 가족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고자하는 합목적적인 활동이다. 가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가족구성과 개인 및 가족특성을 들 수 있으며 개인 및 가족특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는 가치관, 태도, 소비형태, 의사결정,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친다(장명숙 1981). 급격히 변천하는 환경속에서 가정을 직접적으로 주도 운영하는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은 그 가정의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부의 인성, 태도, 가치관, 욕구 등의 모든 면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볼 때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더구나 라이프스타일은 가족의 소비패턴을 크게 좌우하며, 장소와 시대, 사회계층과 소득수준에 따

라 달라지며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한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 또는 사회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과 소비형태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현재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마케팅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케팅분야에서는 시장 세분화, 제품포지셔닝, 광고와 매체전략, 신상품개발등을 위해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 가정관리분야에서는 각 가정의 생활구조, 생활의식, 생활행동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연구가 요구된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속에서 한 가정의 관리행동이나 생활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또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것은 가정관리행동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그리고 예측하는 데에 적절한 방법인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연구에서는 가정관리행동분석의 일환으로서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부의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주부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는자 한다. 그리하여 주부가 어떤 라이프스타일에 속해 있는가를 알게 하므로써 보다 건전한 라이프스타일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는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가정관리교육이나 문제가정의 상담, 소비자 교육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

식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생활전반에 걸친 의식, 행동, 심리변수들에 근거하여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한다.

(2) 주부의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라이프스타일 개념은 Max Weber에 의해 비롯되었는데 Max Weber(1968)는 사회계층을 경제적 관계, 특히 생산체제로의 참여의 형태, 즉 부루주아지와 프로레타리아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하여, 계급(class) 외에 지위그룹(status group)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지위그룹은 재화의 소비양식, 직업, 자녀양육과 교육의 패턴에 의해서 형성되는 계층이고 생활양식, 생활태도, 인생관등의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특정의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Weber의 저서에서는 life style에 해당하는 원어로서 「Lebensführung」(인생관)이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학자 Hugh Dalziel Duncan(1969)은 Weber의 「Lebensführung」이 사회학에서 단순한 기호나 태도를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사회생활에서의 하나의 통합원리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Life Style」이라고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uncan에 의하면 "Style"이라고 함은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주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스타일이 공유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객관적 의미를 갖는 표현이나 양식이다. 즉 라이프스타일은 집단에 소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조해야 할 규범인 동시에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의 집단적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Weber이후 이 개념은 주로 미국 사회학계의 계

층연구자들간에 사용되어 왔다. 내체로 지금까지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의 사회적, 계층적 차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다.

1963년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AMA)에서 『Life Style의 영향과 시장행동』이라는 테마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William Lazer는 라이프스타일을 “사회전체의 또는 사회속에 어떤 Segment에 특유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생활양식”이라고 폭넓게 정의하였다. 동시에 William Lazer는 라이프스타일을 체계론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Life Style은 어떤 문화나 집단의 생활방법을 설명하는 유일한 내용이나 질에 관련되며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된다. Life Style은 사회에 있어서 생활의 역동성으로부터 생겨나고 발달하는 생활형태로서 구체화된다”고 하여 집단적 생활유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라이프스타일을 가족을 중심으로 가정생활 양식에서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Fittzerman(1974)은 라이프스타일은 생활수준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라이프스타일수준은 사용되는 상품, 그것이 사용되는 방법, 그리고 그 사용에서 얻어지는 만족의 정도와 생활수준에 대한 태도라고 하였다. 자원의 사용방법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가정에서의 생산, 소비자행동, 그리고 여가 활동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은 종교적 문화적 이상으로 형성된다. 가족이 속하는 집단의 관습과 의식이 라이프스타일을 크게 지배하며 그것에 따라서 하위문화가 존재한다. 가족은 사회적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함으로써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이상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생활의 여러 가지 형태를 시도하게 된다고 하여 가정생활의 규범양식을 설명하고 있다. Moore(1963) 역시 라이프스타일의 촛점을 가족에 두고 있는데 그는 라이프스타일은 “패턴화된 생활양식이고 가족구성원이 여러가지 상품이나, 할 일이나 자원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적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여 가족의 신념

체계와 행동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Mannino(1970)는 가족연구에 있어서 생태학적으로 접근할 때, 라이프스타일의 다양성, 가족행동과 어떤 환경상황간의 관계, 가족과 환경상호관계등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므로서 라이프스타일은 가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을 개인적 행동개념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정신분석학자인 Adler(1969)는 라이프스타일 개념을 개인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행위의 주체로서의 개인은 외부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자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자기 통일성을 가진 존재이다. 또한 과거에 있어서 생활환경에의 대처경험, 혹은 생활과업의 독자적 해결방법과 미래로 향한목적지향노력 중에서 개인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말하며 그 전체를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체계적 이론에 근거해서 라이프스타일을 설명하는 동시에 개인의 생활방법에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Adler는 개인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한 열쇠일 뿐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개념을 개인적인 면에서 보고 있는데 “라이프스타일은 많은 생활자원의 조합이나 개인의 활동이 암시하는 subsymbol에서 합성된 복합적인 symbol이고 개인의 자아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여 Levy는 Adler와 마찬가지로 라이프스타일을 개인적인 특성으로 설명한다.

이밖에도 Berkman과 Christopher(1978)는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태도, 가치의식, 의견, 흥미, 관심이 조합된 것이며 현재적 행동과 통합된 시스템”이라 하였고, Gross, Crandall, Knoll(1981)은 “광범위하게 말해서 라이프스타일은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정신과 인간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가 생활로 나타난 결과이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현시되는 것이며 결혼생활의 형성과 유지를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Coleman(1964)은 “각 개인의 지각, 사고, 행동의 일관된 것”을 라이프스타일이라 하고 각 개인은 독자적이면서 비교적 일

관된 라이프스타일을 확립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주장하므로서 Gross et al과 Berkman과 같은 맥락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설명하고 있다. Nickell, Rice, Tucker(1976)는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이 인정하는 역할과 역할의 조합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 시민, 고용인, 부모, 부부등이 그 예로서 이러한 역할을 개인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선택된 역할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만약 이러한 역할 조합이 집단의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패턴이 된다면 이것을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여 인간생활에 있어서 사회적인 면의 인간관계와 개인의 역할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村田昭治 등(1979)은 “라이프스타일이라 함은 생활주체가 생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생활과제를 해결하고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독자적인 욕구성향에서 동기가 생기고 스스로의 가치태도, 생활목표, 생활설계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고, 기업, 정부, 지역사회 등 환경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정보와 기회를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조합하고, 사회문화적인 제도적 조직으로부터의 제약내에서 하루, 일주일, 한달, 1년 또는 일생의 cycle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활의식과 생활구조 그리고 생활활동의 3가지 차원에서 구성되는 패턴화된 시스템이다”라고 한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라이프스타일이라 함은 생활과제의 해결 및 충족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생활과제의 해결에는 언제나 재화와 서비스, 정보와 기회의 조합과 선택이 수반되며 따라서 생활자원의 어떤 조합의 선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Berkman & Christopher, Gross, Crandall, Knoll과 Coleman, 그리고 Nickell, Rice, Tucker 등이 생활유지를 위한 인간의 내면적인 철학이나 이념, 가치의 표현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한데 대해서, 村田은 생활의 실제적인 면에 나타나는 생활방법에 초점을 두고 재화와 서비스의 선택의 조합, 정보와 기회의 활용형태에 관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2. 라이프스타일의 요인(factor)와 차원(dimension)

라이프스타일 연구에 있어 각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은 연구목적이나 내용, 대상, 또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취해지는 관련요인(factor), 혹은 차원(dimension)에 의해 구분이 된다.

1963년이래 라이프스타일 패턴과 소비자행동의 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이 발달해오고 있는 바, 그중 가장 널리 이용된 방법은 A(altitude), I(interest), O(opinion)에 의한 AIO분석방법이다. Joseph Plummer(1974)는 life style segmentation을 위해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몇 가지 활동으로 측정한다고 하였다. 즉,

- 1) 사람들은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 2) 사람들은 인접환경에 있어 어떤 것에 중요성을 두는가
 - 3) 사람들은 자기자신과 그들을 놀러싸고 있는 세상에 어떤 의견(생각)을 갖는가
 - 4) 몇가지 기본적 특성으로서 생활주기의 단계, 소득, 교육, 거주지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 이것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할 수 있다.

William Wells & Douglas J. Tigert(1971)는 적어도 행위가 AIO에 관련해서 나타날 때 새로운 통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AIO에 관한 내용이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는 요소가 됨을 설명하였다.

표 1. 라이프스타일의 차원

Activities(활동)	Interests(관심)	Opinions(의견)
일	가족	자신
취미	가정(집)	사회적 논쟁점
사회적 사진	직업	정치
휴가	지역사회	사업
오락	테크리에이션	경제
사교	유행	교육
지역사회	음식	제품
쇼핑	매체	미래
스포츠	업적(성취)	문화

Douglas & Urban(1977)은 라이프스타일 연구는 소비자의 일상생활패턴, 작업습관, 여가활동, 그들의 관심과 자아개념, 열망과 좌절, 가족과 타인에 대한 태도, 환경에 관한 신념과 의견 등을 알아보므로써 시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라이프스타일은 어떤 문화나 집단의 생활방법을 설명하는 유일한 내용이나 질에 관련되며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된다는 William Lazer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Douglas & Urban은 소비자와 상품과의 관계를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설명하고 있다.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의 기본패턴과 차원을 다음의 차원들로 설명한다.

- 1) The home factor : 여성이 가정을 자신의 실존의 focal point로 인정하느냐의 여부, 즉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home orientation의 정도를 반영하는 요소
 - 2) The social factor : 가정외에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요인은 개인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타인과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 3) The frustration factor : dominant role model에 대처하는 여성의 성공 혹은 실패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요인으로, 이것은 좌절의 느낌, 낙관적 태도의 부족, self-confidence의 부족을 통해 나타난다.
 - 4) The innovation factor : 새로운 상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의 혁신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 5) The intellectual role : 지적추구의 여러가지 방법에 대한 관심으로서, 인쇄물, 매체나 T.V., 혹은 고전음악과 pop music과의 선택에서 나타나는 요인
 - 6) The role factor : home making role의 판여 정도에 따라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의 패턴을 보려는 것이다.
- 여기에서 가정생활스타일의 유형분석의 주된 관심은 가정관리역할에서 비롯되며 그것에 의해서 라이프스타일 패턴이 형성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행동에 대한 적용관계를 이해하는 관점

에서 라이프스타일을 보고 있다.

村田昭治(1979)은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시스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주체의 생활평면과 행동 및 의식의 총체로의 시스템 개념의 의식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라이프스타일은 다음의 7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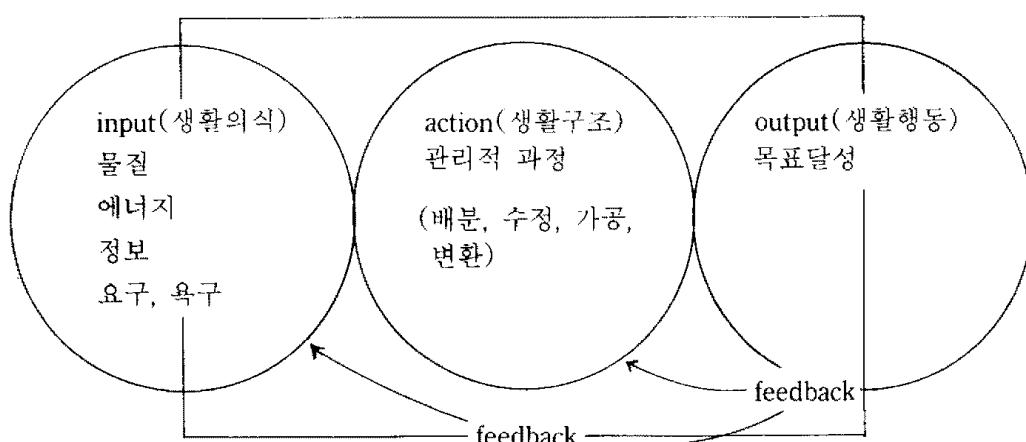
- 1) 생활파제 또는 기능적 요건의 해결 및 충족
- 2) 욕구성향으로부터의 동기부여
- 3) 가치, 태도, 생활목표, 생활설계로부터의 방향설정
- 4) 재화, 서비스, 정보, 기회의 선택적 입수
- 5) 사회문화적인 제도와 조직으로부터의 제약
- 6) 주체적인 설계(계획), 발전 또는 변화
- 7) 생활의식, 생활구조, 생활행동의 3개차원의 패턴화된 시스템

생활구조는 라이프스타일내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한 요인들을 포함한다. 가계지출배분, 생활시간배분, 생활공간의 구성, 재산과 자산의 보유형태, 의식주, 여가의 생활습관 등이 그 예이다. 생활의식은 생활환경에 대해 갖는 생활주체의『주관적인 지각이나 인지』 즉 가치의식, 생활목표, 소비, 구매의식, 집단, 계층준거, 기대와 열망수준 등 심리학적 제요소의 복합체이다. 생활행동은 시스템의 실제적 실행을 말하는데 생활의식으로부터 방향성을 제시받거나 조정받고, 생활구조에 의해 제약

이나 조건을 받게 된다. 이 3가지 구성차원간의 상호의존관계 때문에 생활구조와 생활의식의 지속적 변화속에서 생활행동을 예측하고 그 의미를 이해, 설명할 수 있다.

가족시스템의 개념에 의하면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되는 예는 어떤 경계가 있고 외부에서 환경을 형성하는 여러가지 시스템과의 사이에 투입, 산출의 상호교환이 이루어 진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가정에 있어서 경계과정과 내부과정으로 구별하고 경계과정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행동(life style)을 개념도식의 frame work으로 고안한다. 환경과의 상호경계과정을 통해서 라이프스타일은 넓은 의미의 생활자원, 즉 재산, 서비스, 정보, 기회등을 투입하고 그것을 배분, 수정, 가공, 변환하는 내부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적 하위체계면에서 가족의 "요구, 욕구"등을 에너지로서 투입하고 정보를 투입해서 『생활의식』을 형성하고, 그것을 조정하고 방향정함에 있어 『생활구조』라는 비교적 견고한 매카니즘을 통해 『생활행동』으로 산출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 생활양식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투입하고 첨가하며 개인적 하위체계에도 영향을 주어서 새로운 타입의 "요구나 욕구"를 발생시켜서 그 결과 새로운 패턴의 『생활행동』이 산출되고 따라서 『생활구조』도 변화되어가는 역동적



출처 : Gross, Crandall, Knoll,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ed, p37.

위 변동과정을 거친다.

Schweizer(1969)는 가정경영의 전반적인 구조와 그 구조를 이루는 모든 요인의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각 가정의 개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정분석론」을 창안하였다.

가정분석론에서는 가정의 경영구조를 다음과 같이 4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첫째부분 : 가족구조, 가족의 욕구수준, 가정의 입지조건

둘째부분 : 일상적인 의, 식, 주생활, 구매, 저장, 가족관리 등 가정노동분야로서 작업조건, 기구설비수준

세째부분 : 노동요구시간, 노동시기별분포, 노동자산과의 관계

네째부분 : 가정소득의 크기, 소득의 유형, 자산상태

이것은 본래 가정의 경영실태파악을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로 한 가정의 생활방법, 생활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있으므로 한 가정의 라이프스타일을 연역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관련연구고찰

1) 일반적 라이프스타일 연구

라이프스타일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연구하는 것으로, Reynolds, Craskes와 Wells(1977)는 현대적 여성과 전통적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비교설명하였다. 즉 현대적 성향의 주부들은 생활, 사건, 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전통적 라이프스타일의 여성보다 자유로우며 나아가 그것들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범세계적이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 생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알뜰하며 외모에 매우 관심에 있고 운동과 여가생활에도 참여한다. 또한 전통적 라이프스타일을 점차 쇠퇴해 가고 있으며 특히 취업주부에 있어 현대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일과 생활만족, 활동, 그리고 전통적 역할등의 생활전반에 현대적 사고방식이 높게 나

타났다.

신재엽(1983)은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족중심형, 과외활동지향형, 의견선도형, 사회문제관심형, 성취동기형, 전통주의형, 대아지향형, 개방형, 과시형, 편의주의형, 사려형, 권위주의형, 이상형, 적극주의형의 1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인구통계적 분석결과 성별, 학교유형별, 학년별, 전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factor analysis 결과 추출된 factor, 즉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 위해 작성된 여러 문항들의 대표적 요인변수를 사례수들의 라이프스타일로 이해하고 인구학적 특성과의 분석을 시도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차옥(1983)은 우리나라 도시거주 가정주부를 6개의 라이프스타일 – 소극침체형, 자기계발형, 경제추구형, 보수알뜰형, 유행추구형, 여유안정형 – 으로 cluster분석을 통해 유형화하고 각 라이프스타일에 속한 주부들의 profile을 전반적인 생활의식 및 의, 식, 주, 레져, 스포츠, 구매에 걸쳐 활동, 관심, 의견의 3차원에서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김동진(1985)은 자동차구매집단의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면서 각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factor로서 구적 유행추구, 가족주의, 전통주의, 안정 및 정보추구성을 밝혀내었다.

2) 가정관리학에서의 라이프스타일연구

1960년대 중반부터 가족을 환경과 관련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가정학연구, 특히 가정관리학 연구에 있어서 system theory를 적용하게 되었다.

Buckley(1967)는 가족은 하나의 시스템이며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기전으로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은 제안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안정지향형은 시스템이 기존의 형태, 조직, 혹은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환경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정을 말하며 변화지향형을 시스템이 기존의 형태, 구조, 상태를 정교화시키거나 변화, 발전시키려는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는 시스템과 환경이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시스템의 행동유형으로서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Beard는 가족의 계획행동에 있어서 Morphostatic System과 Morphogenic System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Morphostatic System은 폐쇄적이며 정적이고 자원중심적인 계획을 하는 경향이고 Morphogenic System은 개방적, 적응적, 유기적이며 목표중심적인 계획을 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Kantor & Lehr(1977)은 가족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서 Morphostatic System(폐쇄형)과 Morphogenic System(개방형), 그리고 Random System(무작위형)으로 분류하였다. Morphostatic System은 고정적이고 규칙적인데 반해 Morphogenic System은 융통성 있고, 변화에 대해 수용적이며, Random System은 불규칙적이고 동요가 심하며 탐색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것은 판단이 개인의 직관에 좌우되며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명욱(1976), 이인희(1976)은 가족의 이념이 형성되는 형태에 있어서 3가지 유형을 들고 있다.

첫째, 가족이 직접 생활상황이나 문제에 부딪쳐서 체득하는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이념을 발전시키는 유형이 있고,

둘째, 전통이나 습관에 의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형

세째, 자신의 이념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외부환경의 작용에 의해서 이념이 형성되는 유형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가족이념은 가족의 생활태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Morphostatic oriented system과 Morphogenic oriented system으로 구분하여 가정관리행동이나 계획위면에서 연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강이주(1983)는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정환경요인과 상호관련성을 고찰하였는데 청소

년의 라이프스타일을 7가지 유형—편의주의형, 초자아주의형, 성취동기형, 전통주의형, 가족중심형, 성적집착형, 현실집착형 등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은 성별, 가구주직업, 가족구성, 가정의 소득수준에 의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라이프스타일유형화에 있어 factor analysis 결과를 그대로 적용시켰다는데에 심 재엽(1983)의 연구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영희(1986)는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나누고 이두 유형을 금전관리, 시간관리, 자원관리의 영역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금전 및 시간관리에서는 안정지향적인 행동유형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

박선영(1986)은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분석에서 절제사려형, 적극활동형, 현실주의형, 가족중심형, 전통보수형, 상표지향형, 안정주의형, 정보탐색형, 자유진보형의 9개 유형을 factor analysis 결과 추출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미(1986)는 factor analysis 결과 도출된 15개의 요인변수를 근거로 하여 다시 cluster analysis 하여 주부들의 라이프스타일을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소극침체형, 전전안전형, 소극적개인주의형, 보수적전통주의형, 개방적유형추구형, 현실안정형, 전전절약형. 구분된 라이프스타일의 유형과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주부의 연령, 학력, 가족월평균수입, 주택형태, 자녀수, 결혼지속연수, 세대주직업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주부의 취업여부,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소비자행동의 상당부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밝혔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작성

라이프스타일 조사항목은 AIO 항목을 기준으로 의, 식, 주, 가정관리, 구매, 가족, 자녀양육, 자신, 여가활동, 일 등 가정생활의 9개분야에 걸친 문항들을 관련논문을 참고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방법은 5점 리커트척도로 하여 '정말 그렇다'의 경우에는 '5', '정말 그렇지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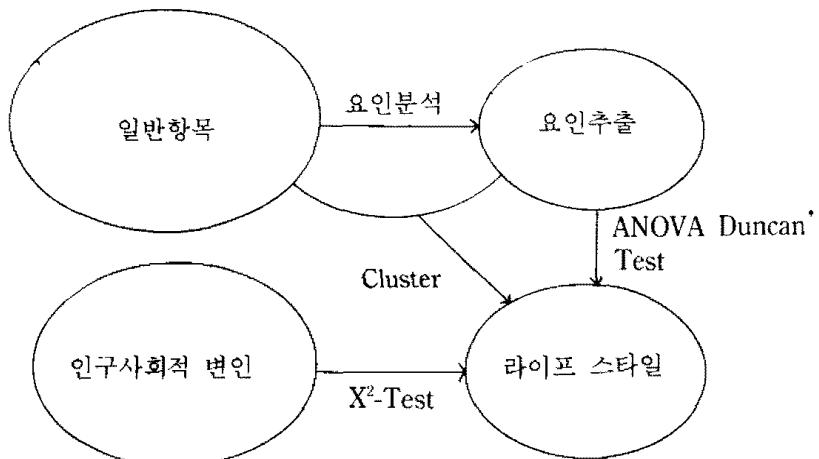
표 2-1. 인구학적 변인

변인	구분	N	%
남	20~29	43	8.5
편	30~39	182	35.8
연	40~49	191	37.6
령	50	92	18.1
부	20~29	104	20.8
인	30~39	172	34.4
연	40~49	174	34.8
령	50	50	10.0
가	가정형성기	74	14.5
정	확대전기	187	36.7
생주	확대후기	215	42.2
활기	축소기	34	6.7
가	2명	59	11.5
	3	52	10.1
족	4	165	32.2
	5	121	23.6
수	6	71	13.9
	7	43	8.4
자	없음	57	11.1
녀	1	53	10.3
수	2	181	36.6
	3	131	25.5
	4	85	16.5
가족	확대가족	138	26.8
형태	핵가족	375	73.2

표 2-2. 사회생활적 변인

변인	구분	N	%
남	국졸	24	4.7
편	중졸	21	4.1
학	고졸	147	28.6
력	대졸	322	62.7
부	국졸	44	8.6
인	중졸	65	12.6
학	고졸	222	43.2
력	대졸	183	35.6
남	전문.기술직	89	18.6
	행정.관리직	124	25.9
편	사무직	135	28.2
	판매직	58	12.1
직	서비스직	27	5.6
	농.축.임.수산업	2	0.4
업	생산.운전.노무직	31	6.4
	부직.정년퇴직	12	2.5
가	20만	39	7.6
족	21~40	57	11.1
수	41~60	130	25.3
입	61~80	105	20.4
	81~100	81	19.8
	101만	81	15.7
주부	있다	138	27.6
직업	없다	361	72.3
주	서울	176	34.2
성	대도시	65	12.7
장	중소도시	86	16.7
지	읍.면이하	185	36.0
주	한옥	57	11.1
택	양옥	201	39.1
	APT	194	37.9
형	연립	42	8.2
태	빌라	17	3.3
종	기독교	178	34.8
교	불교	131	25.5
유	천주교	63	12.3
부	기타	6	1.1
	종교없음	134	26.1

N=514



〈도 1〉. 분석의 틀.

표 3-1. 요인 1.〈민주적, 가정중심성〉

문항번호	요인적재치	문 항 내 용
46	0.5404	아이들에게 지축하는 방법을 힘써 가르친다.
47	0.5154	아이들에게 웃어른께 인사하는 것을 강조한다.
12	0.4466	자녀의 귀가시간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21	0.4417	어떤 종류이던지 집안일을 즐겨서 한다.
24	0.4303	자녀들의 의견이 좋은 것으면 받아들여서 시행한다.
44	0.4271	자녀들은 엄격하게 기르고 있다.
40	0.4194	여성에게 있어 최고의 행복은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다.
65	0.4161	이웃에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응한다.
15	0.4099	집안에 고장난 물건이나 부품이 있으면 바로 고친다.
50	0.4063	모임에 가서 노는 것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43	0.4026	여자아이는 주부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남자아이는 소질에 맞는 직 훈련을 받아야 한다.
19	0.3872	이웃돕기행사에는 적극 참여한다.
29	0.3466	일상용품 구입은 단플상점에서 주로 이용한다.
48	0.3309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해보도록 허용한다.
61	0.3240	편안한 생활보다 활기찬 생활이 되도록 노력한다.
66	0.3191	내집에서 시끄러운 공사를 하게되면 이웃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
58	0.3014	일을 할 때에는 자기가 하던 방법으로 해야 살수가 없다.
14	0.3309	침대보다 온돌이 지내기가 좋다.
59	-0.2993	김치는 사서 먹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편하다.
5	0.2921	명절에는 고유한 전통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18	0.2884	화초는 사는 재미보다 기르는 재미로 산다.

특성 ;『성실』『가정중심』『전통적』『적극적』

에는 '1'로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일반조사항목 68문항과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특성파악을 위한 9개문항의 총2개부분 77개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987년 10월 6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Factor analysis한 결과 요인적재치가 낮게 나온 라이프스타일 조사항목 4개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73개문항이 되었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거주하는 주부로서, 소득수준, 주거형태등을 고려하여 서울시내의 유치원 2, 국민학교 2, 중학교 2, 고등학교 2, 대학 2 개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에서 1개 학급을 무작위 추출하여 하여금 자기기재식으로 질문지에 기입하

도록 하였다. 신혼주부와 사내가 대학교육을 마친 축소기의 주부에게는 훈련된 조사자를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1987년 11월 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650부를 배부하여 그중 592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기재등 연구에 부적합한 것을 제외한 514부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2-1, 표 2-2와 같다.

3. 분석방법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및 클러스터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Duncan Test를 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별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χ^2 -test를 하였다.

자료를 통계처리는 KAIST시스템공학센터의 SAS

표 3-2. 요인 2.〈향유, 편의주의 성향〉

문항번호	요인적재치	문항 내용
67	0.5463	한단에 한번정도는 영화, 음악 또는 연구감상을 위해 외출한다.
68	0.5100	꽃꽂이나 서예같이 나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9	0.4970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옷을 한두벌 가지고 있다.
51	0.4450	여가생활을 위하여 돈을 지출한다.
3	0.4243	사람 외식을 하든지, 별식을 만들어 가족을 즐겁게 한다.
31	0.4078	나는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운동을 한다.
7	-0.3985	최신 유행하는 옷은 어딘가 나에게는 안맞는 것 같다.
20	0.3874	일회용상품은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므로 많이 사용한다.
26	0.3807	새 상품이 나오면 친구나 이웃보다 먼저 사는 일이 흔히 있다.
37	0.3761	살림에 관한 것은 종종 시댁이나 친정의 어른들께 의논드린다.
17	0.3748	편리한 가구나 부엌용품을 갖추어 놓는다.
13	0.3740	부엌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조금씩이라도 자주 개선한다.
54	0.3603	취미생활을 위하여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
41	0.3328	외식을 하는 것은 낭비이다.
6	0.3269	잡지나 T.V에서 새로운 식품이나 요리방법을 보면 한번 해본다.
28	0.3075	바쁜세일을 많이 이용한다.
53	0.2812	남. 너가 함께 춤을 추는 것은 보기 좋다.

특성:『향유』『유행추구』『편의주의』『진보적』

(Statistical Analysis System) Package를 이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1)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요인분석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하여 64개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들 변수들에 잠재하는 몇 가지 차원을 발견하고, 이를 차원을 척도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차원의 도출에 유용한 Common Factor Analysis를 사용하였으며 요인추

출방법은 직각회전방법 중 Varimax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Eigen Value가 1.0이상인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의 각 문항과 문항별 요인적 재치는 다음과 같다(표 3-1~6).

2.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클러스터 분석

1) 클러스터 분석

클러스터분석은 응답자를 변수들을 기준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클러스터분석 결과는 응답자들을 공간거리가 가까운 것부터 차례로 묶어가는 과정을 제시해주게 된다. 이때 클러스터의 수를 너무 적게 잡으면 동일 클러스터내에 이질적인 표본이 함께 포함되게 되어 클러스터의 동질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너무 많이 잡으면

표 3-3. 요인 3.〈현대적 개방성〉

문항번호	요인적재치	문 항 내 용
36	0.4597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할 생각은 전혀없다.
33	0.3963	나와 가족의 단란한 시간을 위하여 비용을 좀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
38	0.3858	남편과 아이들이 부엌일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23	0.3712	비용이 들어도 가정에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25	0.3607	유명상표의 상품은 비싸기는 하나 질이 좋다.
27	0.2977	일단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현금반환 등 조처를 한다.
30	0.2917	구입하려고 하는 상품에 관해서 이웃, 친구, 친척에게 알아본다.
39	0.2884	자녀의 건전한 이성교제는 허용한다.
32	0.2876	지금보다는 변화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특성 :『현대적』『편의적』『적극적』『개방적』

표 3-4. 요인 4.〈이타주의, 적극성〉

문항번호	요인적재치	문 항 내 용
55	0.3914	지역봉사단체나 종교단체에 가입하여 일하고 있다.
56	0.3734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
62	0.3730	가끔 어려운 일이 있다해도 인생은 흥미롭다.
49	0.3551	사회에 불우한 사람이 많은 것은 어느정도 나의 책임도 있다.
35	0.3224	나의 고민을 되도록 속히 털어놓고 해결한다.
2	0.3171	요리를 잘못하는 주부는 가족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60	-0.2767	일을 할 때 시간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한다.

특성 :『이타적』『긍정적』『성실』

표 3-5. 요인 5.〈보수적·자아중실성〉

문항번호	요인적재치	문 항 내 용
57	0.3695	일은 여럿이 하는 것보다 나혼자 해야 능률이 오르고 좋다.
52	0.3616	취미활동은 나혼자 즐기는 것이 좋다.
42	0.3401	노부모에 대한 책임은 역시 아들에게 있다.
45	0.3238	내 아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훈육한다.
34	0.3040	연애결혼보다 중매결혼이 더 좋다.
16	0.2161	가구를 장만할 때 모양이나 디자인보다 가격을 중시한다.

특성:『보수적』『개인적』『폐쇄적』

표 3-6. 요인 6.〈성실·검약성〉

문항번호	요인적재치	문 항 내 용
64	0.4787	유행이 지난 옷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일이 자주 있다.
63	0.4454	콩나물이나 파같이 간편한 것을 집에서 직접 길러먹는 일이 흔히 있다.
11	-0.4377	옷을 수선할 때 집에서 하는 것보다 수선집에 맡겨서 한다.
10	0.3511	여자는 어느정도 바느질 솜씨가 있어야 한다.

특성:『검약』『성실』

클러스터분석을 통해 응답자들을 몇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려는 연구자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유의해서 클러스터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클러스터분석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Ward's method를 사용하였다.

2) 클러스터 수의 결정

SAS package에서는 클러스터의 수를 결정하는데 "RMS STD"라는 통계량을 제공해준다. 이 통계량은 클러스터내의 동질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숫자가 작을수록 동질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수가 증가할 수록 RMS STD의 값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Ward's minimum variance cluster analysis를 한 결과, 아래의 표 4-1 표 4-2에서 보듯이 클러스터를 5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RMS STD값이나 클러스터별 표본수, 분석이 용이한 클러스터수의 범위등을 고려할 때 클러스터가 5개인

경우가 가장 적당하다.

3)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도출된 라이프스타일 요인 변수들이 클러스터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ANOVA의 일원변량분석과 Duncan Test를 통해 알아보았다. 클러스터별 라이프스타일 요인의 차이분석은 다음 표 4-3과 같다.

위의 표 4-3을 통해 각 클러스터의 특성이 부각되는데 요인변수를 이루는 각 문항의 클러스터별 평균점수는 다음 표 4-4와 같다.

위에서 본 두개의 표를 통해 각 클러스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클러스터는 가정에는 어느정도 충실한 편이나 취미활동이나 여가생활을 즐기는데에 무관심하며 매우 소극적, 폐쇄적, 전통적이며 편의주의 성향도 적다.

- 제2클러스터는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생활태도에서는 전통적이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표 4-1. Cluster 수의 결정

Cluster의 수	RMS STD	설명
1	0.982136	
2	0.999059	
3	0.894607	CL이 2개일 때보다 RMS 상당히 감소, 4개가 되면 오히려 증가
4	0.973668	
5	0.952509	CL이 4개일 때보다 RMS 감소, 표본수와 CL수 적당
6	0.932232	CL이 5개일 때보다 RMS 감소, 한 Cluster의 표본수가 22개로 부적
7	1.002936	
8	0.818966	RMS 기준으로는 최적이나 한 Cluster의 샘플수가 5개여서 부적합

표 4-2. Cluster의 수와 Sample의 수

Cluster의 수	6	5(*)	3
1	1	105(20.3%)	105(20.3%)
	2	22(4.2%)	124(24.0%)
	3	102(19.8%)	
2	4	32(6.2%)	32(6.2%)
3	5	52(10.1%)	52(10.1%)
3	6	201(30.9%)	201(39.1%)
계		514	

개방적이다. 어느정도 생활에 여유를 추구하는 편
이지만 겸약성도 뛰어나다.

● 제3클러스터는 가정에 매우 충실하며 변화나
정보에 대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다.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이웃을 함께 고려하는 이타주의 성격도 강

하며 특히 자신에 대해 성실한 면이 강하다.

● 제4클러스터는 전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며
부정적, 소극적인 면이 강하다. 생활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성격이 비슷한 1클러스터와
비교되는 점은 이타주의, 겸약성 등이 낮게 나타
난다는 것이다.

● 제5클러스터는 매우 생활을 즐기는 유형으로
편의주의 성향, 유행추구성이 강하며 사고방식에
있어 자주적, 진보적, 적극적, 개방적으로 현대적인
성향이 풍부하다. 반면에 자신에 대한 충실은 미
흡한 면이 있다.

이상의 것을 종합하여 각 클러스터의 명칭을 다
음과 같이 명명하므로써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
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현대적진보형이 가장 많은 비

표 4-3. Cluster별 Factor변수의 차이검증

Factor	Cluster	CL1	CL2	CL3	CL4	CL5	F-ratio
FA1(민주적 가정충실성)		-	H	VH	VL	-	51.88*
FA2(향유.편의주의 성향)		VL	-	VL	L	VH	73.94*
FA3(현대적 개방성)		VL	L	VH	-	VH	39.75*
FA4(이타주의 적극성)		-	-	H	L	-	10.37*
FA5(보수적 자아충실성)		L	H	VH	-	L	27.81*
FA6(성실.겸약성)		-	H	-	L	-	11.33*

주 Duncan Test 결과를 근거로 Mean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고려한 것임.

VH : Very High, H : High, L : Low, VL : Very Low, *P<0.0001

표 4-5. 각 라이프스타일 유형 및 분포

라이프스타일 번호	라이프스타일 유형	샘플수 및 %
1	보수적 안정형	105(20.3)
2	성실검약형	124(24.0)
3	건전안정형	32(6.2)
4	소극적 침체형	52(10.1)
5	현대적 진보형	201(39.1)

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성실검약형, 보수적안정형 등이며 건전안정형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건전안정형이 가장 높은 비율(26.5%)을 보이고 다음으로 소극침체형(12.9%), 현실안정형(16.5%), 소극적개인주의형(14.3%), 건전설약형(12.9%), 개방적유행추구형(6.7%), 보수적진통주의형(5.7%)의 순을 나타낸 김경미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유의할 필요를 느낀다.

2.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계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인구통계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유형과의 차이 검증결과는 다음 5-1과 같다.

(1) 연령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연령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편과 아내 모두 20대인 집단에서는 현대적 진보형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72.1%, 63.5%), 50대에는 성실검약형에 높은 비율(37.0%, 44%)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와 물질의 풍요와 더불어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쟁세대와 전후세대의 세대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유형별 연령분포를 보면 보수적안정형, 성실검약형, 건전안정형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40대, 30대, 50대의 순서를 보이는 반면 소극침체형은 30대, 40대가 같은 비율을, 현대적진보형에서는 남편이 30대, 아내가 20대와 30대에서 높은 비율을, 현대

적진보형에서는 남편이 30대, 아내가 20대와 3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로써 현상황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안정을 기하려는 생활태도는 주로 중년층에, 보다 발전적이고 전보적인 생활양식은 장년층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2)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형성기와 확대전기에는 현대적 진보형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확대후기에는 성실검약형과 현대적진보형, 보수적안정형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축소기에는 성실검약형과 보수적 안정형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가정생활주기가 발달할수록 현대적진보형에서 성실검약형, 보수적안정형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유형별 가정생활주기 단계를 보면 보수적안정형과 성실검약형, 건전안정형에서 모두 확대후기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가정생활주기가 발달할수록 현대적진보형에서 성실검약형, 보수적안정형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유형별 가정생활주기 단계를 보면 보수적안정형과 성실검약형, 건전안정형에서 모두 확대후기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소극침체형과 현대적 진보형에서 똑같이 확대전기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을 볼 때 확대전기의 주부는 같은 시기에 처해있으면서도 소극침체형과 현대적 진보형의 상반되는 유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주부의 생활에 대한 태도교육에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3) 가족수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가족수가 2~5명일 경우에는 현대적진보형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6명 이상인 경우는 성실검약형과 보수적안정형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가족의 수가 적으면 이 만큼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안정보다는 진보를 추구할 여유가 있는 탓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각 유형별 가족수의 분포를 보면 보수적안정형과 성실검약형, 소극침체형, 그리고 현대적 진보형에는

표 5-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구분		보수적 안정형	성실·검약형	건전·안정형	소극침체형	현대적 진보형	%	$\chi^2(df)$
남	20~29	7.0(2.9)	11.6(4.1)	0.0(0.0)	9.3(7.7)	72.1(15.2)	100	
편	30~39	18.1(31.4)	16.9(24.4)	2.8(16.2)	12.6(44.2)	50.0(46.0)	100	75.6(12) ^b
연	40~49	20.9(38.1)	28.3(43.9)	7.3(36.7)	12.0(44.2)	31.4(30.3)	100	
령	50+	31.5(27.6)	37.0(27.6)	12.0(46.7)	2.2(3.9)	17.4(8.7)	100	
부	20~29	(100)	(100)	(100)	(100)	(100)	(100)	N=508
인	30~39	20.4(34.0)	22.1(31.4)	0.0(0.0)	14.4(30.0)	63.5(34.2)	100	
연	40~49	24.7(41.8)	28.7(41.3)	5.8(30.1)	12.8(44.0)	38.9(34.7)	100	76.0(12) ^{a***}
령	50+	26.0(12.6)	44.0(18.2)	8.6(45.5)	7.5(26.0)	30.5(27.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508
생	가장형성기	9.5(6.7)	9.5(5.7)	0.0(0.0)	9.5(13.5)	71.6(26.6)	100	
활	학대전기	17.6(31.7)	20.9(31.7)	3.2(16.3)	14.4(51.9)	43.9(41.2)	100	80.5(12) ^b
활	학대후기	24.7(51.0)	28.8(50.4)	10.2(68.8)	7.9(32.7)	28.4(30.7)	100	
주	축소기	32.4(10.6)	44.1(12.2)	11.8(12.5)	3.0(1.9)	8.8(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508
가	2	15.3(8.6)	6.8(3.2)	0.0(0.0)	11.9(13.5)	66.1(19.5)	100	
3	19.2(9.5)	11.5(4.8)	7.7(12.1)	5.8(5.8)	55.8(14.5)	100		
4	20.0(31.4)	24.2(32.3)	5.5(5.8)	11.5(36.5)	38.8(32.0)	100	71.1 ^b	
5	23.1(26.7)	28.9(28.2)	5.0(18.2)	12.4(28.9)	30.6(18.5)	100		
6	22.5(15.2)	32.4(18.6)	14.1(30.3)	4.2(5.8)	26.8(9.5)	100		
7	22.2(8.6)	38.9(12.9)	11.1(12.1)	11.1(9.5)	16.7(6.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511
자	없음	14.0(7.6)	8.8(4.0)	0.0(0.0)	8.8(9.6)	68.4(19.5)	100	
녀	1	18.9(9.5)	13.2(5.7)	5.7(9.1)	7.6(7.7)	54.7(14.5)	100	
수	2	19.2(34.2)	25.0(37.9)	5.9(33.3)	11.7(42.3)	38.3(36.0)	100	49.0(16) ^b
3	24.4(30.5)	32.8(34.7)	6.1(24.2)	10.7(26.9)	25.9(17.0)	100		
4	22.4(18.1)	25.9(17.7)	12.9(33.3)	8.2(13.5)	30.6(13.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514
가족	학대가족	21.0(27.6)	26.1(29.0)	8.7(36.4)	6.5(17.3)	37.7(26.0)	100	
형태	혈가족	20.3(72.4)	23.5(71.0)	5.3(63.6)	11.5(82.7)	39.5(74.0)	100	19.2(4)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513

1 : P<.05, 2 : P<.01, 3 : P<,.001

		사회적 경제적 특성		X ² (df)	
학년	3학년	29.2(6.7)	29.2(5.7)	16.7(12.1)	16.7(5.0)
학년	2학년	19.1(3.8)	38.1(6.5)	9.5(6.1)	19.1(2.0)
학년	1학년	34.7(41.1)	10.9(48.5)	9.5(26.9)	17.7(13.0)
학년	전체	18.0(46.5)	3.4(33.3)	10.3(63.5)	51.6(83.0)
성별	여자	16.8(51.4)	(100)	(100)	N = 514
성별	남자	12.6(21.9)	(100)	(100)	N = 514
학과	전기·전자공학	20.2(17.1)	2.3(6.1)	11.2(19.2)	50.6(22.5)
학과	생명과학	15.3(18.1)	7.3(27.3)	8.9(21.2)	50.0(31.0)
학과	사범대학	20.0(25.7)	3.0(12.1)	9.0(23.1)	43.0(29.0)
학과	환경대학	19.0(10.5)	38.0(17.7)	10.3(17.7)	22.4(6.5)
학과	화학	29.6(7.6)	37.0(8.1)	3.7(1.9)	18.5(2.5)
학과	수리과학	0.0(0.0)	0.0(0.0)	10.0(1.0)	100.0
학과	영어영문학	36.5(10.5)	19.4(4.8)	12.9(12.1)	16.1(2.5)
학과	교육학	25.0(2.9)	41.7(4.0)	8.3(3.0)	0.0(0.0)
학과	법학	(100)	(100)	(100)	N = 478
학과	국어국문학	23.1(3.6)	2.6(3.0)	7.7(5.8)	30.8(6.0)
학과	영어영문학	26.3(14.3)	7.0(12.1)	17.5(19.2)	24.6(7.0)
학과	한국학	23.9(29.5)	3.9(15.2)	30.0(19.5)	100.0
학과	국어국문학	20.0(20.0)	5.7(18.2)	7.6(15.4)	44.8(23.5)
학과	영어영문학	23.5(19.4)	7.8(24.2)	6.9(13.5)	48.0(24.5)
학과	국어국문학	17.3(13.3)	11.0(27.3)	4.9(7.7)	48.2(19.5)
학과	한국학	(100)	(100)	(100)	N = 478
학과	국어국문학	18.5(24.3)	(100)	(100)	100.0
학과	한국학	(100)	0.5(22.6)	9.4(25.0)	45.4(28.1)
학과	영어영문학	21.7(25.0)	6.6(77.4)	10.8(75.0)	39.1(71.9)
학과	한국학	24.9(75.0)	(100)	(100)	N = 499
학과	한국학	(100)	(100)	(100)	N = 499
학과	한국학	18.2(25.8)	3.4(18.2)	13.6(46.2)	51.7(45.5)
학과	한국학	23.1(12.1)	3.5(9.1)	13.9(17.3)	32.3(10.5)
학과	한국학	30.2(21.0)	8.1(45.5)	5.8(9.6)	39.5(17.0)
학과	한국학	26.5(39.5)	(100)	7.6(26.9)	29.2(27.0)
학과	한국학	(100)	(100)	(100)	N = 511
학과	한국학	36.8(16.9)	7.0(12.1)	14.0(15.4)	21.1(6.0)
학과	한국학	21.1(11.4)	28.4(46.0)	9.0(34.6)	33.3(33.5)
학과	한국학	23.4(44.8)	15.5(24.2)	10.8(40.4)	52.6(51.0)
학과	한국학	15.5(28.6)	28.6(9.7)	7.1(33.3)	33.3(7.0)
학과	한국학	21.4(8.6)	11.8(1.6)	9.5(7.7)	29.4(2.5)
학과	한국학	35.3(5.7)	(100)	5.9(1.9)	(100)
학과	한국학	(100)	(100)	45.5(40.8)	43.5(16)
학과	한국학	20.8(35.2)	20.2(29.0)	6.7(36.4)	6.7(23.1)
학과	한국학	22.1(27.6)	34.4(34.3)	8.4(33.3)	7.6(19.2)
학과	한국학	22.2(31.5)	25.4(12.9)	8.0(15.2)	36.5(11.5)
학과	한국학	33.3(1.9)	16.7(0.8)	7.9(9.6)	16.7(0.5)
학과	한국학	17.2(21.0)	19.4(21.0)	16.7(32.1)	43.3(29.0)
학과	한국학	(100)	(100)	(100)	N = 512

1 : P<.05 2 : P<.01 3 : P<.001

가족수 4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건전안정형에는 가족수 6인 경우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4) 자녀수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자녀수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없거나 1~2명인 집단이 현대적진보형에 가장 높은 비율을, 3명인 경우는 성실검약형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형별 자녀수의 분포를 보면 보수적 안정형, 성실검약형, 소극침체형에서 건전안정형은 2, 4이상에서, 현대적진보형은 2인 경우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자녀수가 적은 집단일수록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진보적인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주부들일수록 가족계획을 철저히하며 또 적은 자녀의 수를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5) 가족형태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가족형태, 즉 확대가족이냐 혹은 핵가족이냐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가족형태의 분포를 보면 핵가족이 확대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례주가 많기 때문에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 평균적으로 볼 때 확대가족은 건전안전형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 소극침체형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의 주부가 더 바람직한 라이프스타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표 4-2)

(1) 학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남편의 학력과 라이프스타일과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편의 학력별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을 보면 국졸인 경우는 소극적안정형과 성실검약형에, 중졸과 고졸을 성실검약형에 대졸이상은 현대적 진보형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부는 현대적진보형의 라이프스타일을 가

지며 낮을수록 성실검약형, 보수적안정형의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이다. 고졸이 대졸이상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인의 학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을 보면 국졸은 보수적안정형에 중졸은 성실검약형에 고졸과 대졸 이상은 현대적진보형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형별 학력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에 고졸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현대적진보형에서만은 대졸이상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남편과 부인 모두 학력이 낮으면 보수적안정형, 성실검약형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이나 학력이 높으면 현대적진보형의 성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학력이 낮으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나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이고 적극적이며 편의추구적인 특성을 갖는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학력이 높으면 그만큼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기회도 다양할 뿐더러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 남편의 직업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남편의 직종별 라이프스타일을 보면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사무직은 모두 현대적진보형에 판매직, 서비스직은 성실검약형에, 생산직과 기타는 보수적안정형과 소극침체형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남편의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현대적진보형에, 보통이면 성실검약형에 낮으면 보수적안정형이나 소극침체형의 라이프스타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 직업을 살펴보면 소극적안정형과 성실검약형과 성실검약형, 소극침체형은 사무직에서 건전안정형과 현대적진보형은 행정관리직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3) 소득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소득이 20만원 이하인 집단은 성실검약형에, 21~40만원은 보수적안정형에, 41~60만원 61~80만원, 81~100만원, 1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현대적 진보형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을 볼 때 소득이 40만원을 임계치로하여 그 이하인 경우는 현상태를

유지, 안정하는데 무력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보다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진보적 태도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유형별 소득집단을 보면 보수적안정형, 성실검약형, 소극침체형에서는 41~60만원의 소득이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건전안정형과 현대적진보형은 81만원이상인 집단에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김경미(1986), 박선영(198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으로 주부가 취업한 경우 라이프스타일이 보다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외국의 경우와는 비교가 된다 그렇다면 주부가 취업하는 경우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향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5) 주부의 주성장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주성장지가 서울과 대도시, 중. 소도시인 경우는 현대적 진보형이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읍면이하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안정형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유형별 주성장지의 분포를 살펴보면 보수적안정형과 성실검약형, 건전안정형에서는 읍면 이하 집단이, 소극침체형과 현대적진보형은 서울인 집단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로써 읍. 면이하인 지역에서 자란 주부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갖으며 서울이나 도시에서 자란 주부는 소극침체형과 현대적 진보형이라는 두 극단적인 성격의 유형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부와 빈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야누스적인 도시의 특성이 라이프스타일에도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6) 주택형태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한옥인 경우는 성실검약형에, 그리고 양옥, APT, 연립은 모두 현대적진보형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형별 라이프스타일을 보면 보수적안정형, 성실검약형, 건전안정형은 양옥이 소극침체형과 현

대적진보형은 APT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교적 APT에 거주하는 주부에 현대적진보형,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는 보수적, 안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갖는데 이것은 거주주택형태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인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택형태가 달라지는 것인지 그 분석방향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다.

(7) 종교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기독교와 천주교 등 기독교계통과 무종교인 경우에는 현대적진보형에, 불교는 성실검약형에, 기타는 보수적안정형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형별 종교를 보면 소극적안정형, 건전안정형, 현대적진보형은 기독교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성실검약형은 불교에서, 소극침체형은 무종교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서구적 문물의 유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도입된 기독교계통의 종교를 갖는 주부가 새로운 정보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종교인 불교를 믿는 주부보다 개방적이고 따라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고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유형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AIO항목을 기준으로 의.식.주, 가정관리, 구매, 가족, 자녀양육, 자신, 여가활동, 일 등 가정생활의 9개분야 64개 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 및 클러스터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은 가정에는 어느정도 충실하나 소극적이고, 전통적이며, 폐쇄적인 '보수적안정형',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검약성이 뛰어난 '성실검약형', 변화나 정보에 대해 적극적, 개방적이며 이타주의 성격도 강하며 자신에 대해 성실한 '건전안정형',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검약성도 낮은 '소극침체형', 편의주의와

유행추구 성향이 강하면서도 진보적이며 현대적인 '현대적진보형'의 5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전체집단에서 볼 때에 현대적진보형이 가장 높은 비율(39.1%)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성실검약형, 보수적안정형의 순을 보이고 있다.

2) 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본 연구에서 채택한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특성 중, 남편과 부인의 연령, 가정생활주기단계, 가족수, 자녀수, 가족형태 그리고 남편과 부인의 학력, 남편의 직업, 가정의 소득, 주부의 주성장지, 주택형태,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남편과 부인의 연령이 20대인 집단에서는 현대적진보형이 많았으며 50대에는 성실검약형이 많았다.

② 가정생활주기의 가정형성기와 확대전기에는 현대적진보형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확대후기에는 성실검약형과 보수적안정형, 현대적진보형이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축소기에는 성실검약형과 보수적안정형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③ 가족수가 적을 때(2~5명)은 현대적진보형에, 6명 이상일 때는 성실검약형과 보수적 안정형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④ 자녀가 없거나 1, 2명으로 비교적 적거나, 반대로 4명 이상인 경우에 현대적진보형이, 3명인 경우에 성실검약형이 높은 비율이었다.

⑤ 가족형태는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에서 건전안정형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소극침체형에서는 낮은 비율로 나타냈다.

⑥ 남편과 아내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집단은 보수적안정형이 많았으며, 고졸과 중졸은 성실검약형이 그리고 대졸 이상은 현대적 진보형이 높은 비율이었다.

⑦ 남편의 직업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은 남편은 직업위세가 높은 직종일수록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은 현대적진보형의 특성을 보였다.

⑧ 가정의 소득이 40만원 이하이던 보수적안정형,

성실검약형에, 그 이상이면 건전안정형과 현대적 진보형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⑨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⑩ 주부의 주성장지가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주부는 보수적, 안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지며 서울이나 대도시인 경우에는 현대적진보형과 소극침체형의 두가지 상반되는 유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⑪ 주택형태에 따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는 보수적안정형, 성실검약형, 건전안정형에 높은 비율을 보이며 APT에 거주하는 주부는 소극침체형과 현대적 진보형에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⑫ 종교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은 서구에서 근래에 유입된 기독교계통의 종교를 가진 주부는 현대적 진보형, 전통적인 불교를 믿는 주부는 성실검약형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가운데에서 현대적진보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낮고, 가정형성기에 속하며 가족수, 자녀수가 적고 학력이 높고 남편의 직업위세가 높은 경우, 소득이 높고 아파트에 거주하며 기독교계통의 종교를 가진 주부가 현대적진보형에 높은 비율로 속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장차 우리 사회를 주도할 사회의 지도층에 속한다는 사실인데 이들이 갖는 편의주의적 성향, 유행추구의 성향에 대해서 우려가 되나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개방성, 적극성, 진보적 사고방식 등 오히려 역동적이고 변화가 무쌍한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태도라고보인다. 따라서 지나친 편의주의와 유행추구성향을 배격하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현대적이고 발전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갖도록 하는 가정관리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을 인구통계적,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므로써 현대 주부들의 갖는 라이프스타일의 속성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가정관리행동과 그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와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에게 한정시켰으므로 앞으로는 중, 소도시, 그리고 읍, 면 이하같이 소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계속 연구 범위를 확대시켜 우리나라 전체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을 비교, 파악할 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것은 가정관리행동의 파악 및 예측, 문제가정의 진단, 소비자 교육등에 유용한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이주 : 청소년의 생활양식 유형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2) 김경미 :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6
- 3) 김동기 : 현대 마아케팅 원론, 서울 : 박영사, 1984
- 4) 김동진 : 마아케팅 전략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5) 박선영 : 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분석과 관련변인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6) 심재엽 :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 결정요인에 관한 다변량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7) 여성 라이프스타일 조사 안내, 리스피아르카운셀링 경제사연구소, 1981-83
- 8) 이인희 : 가정관리학, 수학사, 1976
- 9) 이차옥 : 우리나라 도시거주 가정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 10) 장명옥 : 가정관리학, 교문사 : 59-60, 1981
- 11) 조영희 :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12) 村田昭治・井關利明・川勝久 : ライフスタイル全書 : 理論・技法・應用, 東京 : ダイヤモント社, 1979
- 13) Adler A : (ed.) by H.L. Ansbacher, *The Science of Living*, Anchor Book, Doubleday & Co., N.Y., : 38-47, 1969
- 14) Beard DM : *Morphostatic and Morphogenet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 Development of Measurement Instrument*. Ph.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1975
- 15) Berkman HW and Gilson CC : *Consumer Behavior Concept and Strategies*. Encino : Dicker-son Publishing Co., 1978
- 16) Buckley W : *Sociology and Modern System Theory*. Englewood. Cliff : Prentice-Hall, Inc., 1967
- 17) Coleman JC : *Abnormal Psychology and Modern life*. 3rd, ed., Scott, Foresman, Chicago., 1964
- 18) Deacon RE and Firebaugh FM :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and Bacon, Inc., 1981
- 19) Douglas SP and Urban CD : *Life-Style Analysis to Profile Women in International Markets*. Journal of Marketing, July : 46-54, 1977
- 20) Duncan HD : *Symbols and Social Theory*. Oxford Univ. Press 5 : 32-35, 1969
- 21) Gross, Crandall and Knoll :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5ed,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N.Y., 1980
- 22) Kantor D and Lehr W : *Inside the Family*. Jossey Bass Publishes., 1977
- 23) Lazer W : *Life Style Concepts and Marketing*. in S.A. Gregser. ed., *Toward Scientific Marketing*, AMA, : 130-139, 1963
- 24) Levy SJ : *Symbolism and Life Style*. 村田昭治外 21 재인용 : 14, 1963
- 25) Mannino, F : *An Ec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Family and Community Relations*. Journal of Home Economics, 66 : 9-13, 1974
- 26) Moore DG : *Life Style in Mobile Suburbia*. S.A. Greyser, ed., *Toward Scientific Marketing*, AMA,

- : 151-163, 1963
- 27) Nickell, Rice and Tucker : *Management in Family living(5th ed)*. John Wiley and Sons, N.Y., : 5-8
- 28) Plummer JT :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38(Jan.) : 33-37, 1974
- 29) Reynolds FD, Crask MR, Wells WD : *The Mo-*
- dern Feminine Life Style*. *Journal of Marketing*, July : 38-45, 1977
- 30) Schweizer RV : *Die Haushalts analyse*. In : *Hauswirtschaft und Wissenschaft*, 17 Jg. Heft. 1, 1969
- 31) Tigert DJ : *Life Style Analysis as a Basis for Media Selection*. In Wells WD(ed.), *Life Style and Psychographics*, AMA Chap III, 1974

